

광주·전남 국가대표 꿈나무...이 선수들을 주목하라

제2의 전용태 꿈꾼다...광주체중 이루리, 지난해 근대3종 3관왕 차지
체조 광주체중 송채연·수영 영암초 문승유 등 소년체전 금빛활약 기대

전국 청소년들이 스포츠 기량을 뽐내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광주·전남 출전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15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이번 소년체전에 17개 시·도 1만 8893명(선수 1만2337명, 임원 6556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는 1045명(선수 630명, 임원 415명), 전남은 1229명(선수 748명, 임원 481명)의 선수단이 경남을 찾는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근대3종 '3관왕'의 영광을 안은 이루리(광주체중 3)의 금사냥이 예상된다.

3년 전 인천에서 광주체중으로 옮겨 온 이루리는 근대3종 국가대표 전용태(광주시청)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루리는 지난해 소년체전 여자15세이하부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송현서·이지아(이상 광주체중 3), 양보민(광주체중 2)과 호흡을 맞춰 단체전과 계주에서도 금을 다했다.

레슬링에서는 떠오르는 유망주 최지원(광주체중 3)에 눈길이 쏠린다.

최지원은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F92kg급 금메달을 따냈다. 올해 3월 철원에서 열린 '제35회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 G92kg에서 금메달을, F92kg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소년체전 에어로빅 합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태민(에어로빅합합 전문 스포츠클럽 3)도 올해 경기에서 나선다.

체조에서는 지난 4월 제80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송채연(광주체중 3년)의 활약이 주목된다.

송채연은 마루, 이단평행봉,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올랐고 단체종합 경기에서 은메달, 도마와 평균대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8월 제5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학 레슬링 대회 F71kg과 G71kg에서 동메달을 딴 김정민(전남체중 3)이 기대주다.

올해 4월 보성에서 열린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정장금(50kg 이하) 1위를 차지한 김태산(관산초 6)의 활약도 기대된다.

지난해 4월 '제19회 제주한라배 전국수영대회' 여자 유년부 자유형 50m와 100m에서 은메달 2개를 딴 김루아(한려초4), 같은 대회 여자 초등부 평영 50m와 100m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문승유(영암초 6)의 금메달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사전경기에서는 전남 선수들의 활약



지난해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15세이하부에서 3관왕을 차지한 근대3종 이루리(왼쪽·광주체중 3)와 수영 자유형 경기 모습. <전남체육회 제공>

이 이어졌다.

김태빈(목포하당중 3)은 여자부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하은(광양백운중 3)도 여자부 멀리뛰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색 선수들도 눈길을 끈다. 광주에서는 종목별 '3남매' 출전이 이어진다.



배구에서는 김진아(여·광주체중 3), 김진성(문흥중 1), 김진서(문정초 5) 3남매가 출전 선수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양궁에서는 조여준(광주체중 2)과 쌍둥이 조담준·여준(이상 삼정초 6), 유도에서는 이백산(광주체중 3)·이아린(여·광주체중 1)·이어진(본춘초 5) 3남매가 경기에 나선다.

전남에서는 권누리(여·전남체중 1)·권가은(전남체중 2)·권아리(여·광양중마초 3)·권다운(광양중마초 6) 4남매가 수영 종목에 출전한다.

이외 검도와 농구, 배구 등 14개 종목 23명의 다문화 선수들도 전남을 대표해 경기에 나선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 태극마크 달았다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출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윤태성이 오는 9월 열리는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한다.

윤태성은 지난 18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양궁 경기장에서 끝난 '제5회 대한장애인양궁협회장배 전국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컴파운드 50m 1라운드(341점), 2라운드(337점) 총점 678점으로

로 랭킹라운드 1위를 차지했다.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린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윤태성은 국제대회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점수 기준인 MQS(Minimum Qualification Score) 678점을 맞추면서 태극마크를 달게됐다.

여자 컴파운드에서는 권유나가 50m 랭킹라운드 1위(총점 663점), 혼성 단체 1위, 개인전 1위를 기록하며 전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리커브 종목에서는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장경숙(전남 장애인양궁협회)이 총점 54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만 권유나와 장경숙은 MQS 조건을 맞추지 못해 오는 6월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겸해 경기도 여주에서 열리는 '제1회 여주시장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에서 기준 달성을 노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김세영, 멕시코서 4년 6개월만에 LPGA 우승 도전

멕시코오픈 톱랭커 대부분 불참
전인지·박성현·윤이나 등 출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오픈(총상금 250만달러)이 22일부터 나흘간 멕시코 키타나로오주 플라야 델 카르멘의 엘 카말레온 골프클럽(파72·6583야드)에서 열린다.

LPGA 투어 대회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것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 이후 올해가 8년 만이다.

2017년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서널에서 우승했던 김세영은 올해 멕시코오픈에 출전해 멕시코와 좋은 인연을 이어갈 태세다.

2025시즌 들어 4월 매치 플레이 대회 16강이 가장 좋은 성적인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4년 6개월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올해 멕시코 대회에 톱 랭커들이 다수 불참하는 것도 김세영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음 주인 29일부터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이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 선수들이



2017년 5월 멕시코에서 열린 로레나 오초아 인비테이션서널에서 우승한 김세영. /연합뉴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이번 멕시코 대회 불참을 선택했다.

한국 선수로는 김세영 외에 최혜진, 신지은, 이소미, 전인지, 박성현, 이정은, 윤이나 등 15명이

출전한다.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중에서는 15위 찰리 헐(잉글랜드), 17위 다케다 리오(일본) 2명만 나온다.

다케다는 올해 신인상 부문 472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신인상 부문 8위(108점) 윤이나로서는 부지런히 주격해야 신인상 부문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다.

5월 2개 대회에서 내리 첫 탈락한 윤이나가 이번 대회에서 반전의 계기를 잡을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이달 초 국내에서 열린 레이디스 유러피언투어(LET) 아랍코 챔피언십에서 1년 7개월 만에 컷을 통과한 박성현이 이번 대회와 다음 주 US여자오픈에서 '부활 샷'을 이어갈 것인지에도 팬들의 기대감이 크다.

대회장인 엘 카말레온 골프클럽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를 개최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LIV 골프 대회를 치른 장소다.

7번 홀 페어웨이에 커다란 벙커가 있다. 이는 시노데라고 불리는 현지 싱크홀 현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뽕굴 벙커'라고도 불린다. /연합뉴스

광주 이승후, 장애인배드민턴대회 금빛 스매싱

바레인대회서 금·동메달 획득

장애인 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 이승후(전대사대부고1)가 중동 국제대회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후는 13일부터 18일까지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바레인 장애인 배드민턴 국제대회' SL3(Standing Lower 3·하반신 중증 정도의 장애) 단식 결승에서 재그디시딜리(인도)를 2-0으로 이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6회 두바이 파라배드민턴 인터내셔널 2025'에서는 조나단(서울의료원)과 복식 SL3 & SL4에 출전해 동메달을 기록했다.

이승후는 지난해 12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국내랭킹 1위 주동재(서울의료원)를 이기면서 장애인배드민턴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다.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첫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이승후는 담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월봉중으로 진학해 본격적으로 배드민턴을



바레인 장애인 배드민턴 국제대회에서 이승후(왼쪽)가 SL3 단식 결승 금메달을 땀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배우기 시작했고, 광주장애인공공스포츠클럽과 동구스포츠클럽에서 훈련하며 실력을 쌓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선수단,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 선전

진도군청, 800m 남·여 동반 우승 등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청이 800m 경기에서 남·여 동반 우승을 이루는 등 금메달 3개를 수확했다.

이서빈은 지난 19일 밀양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여자일반부 800m 경기에서 2분12초03로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일반부 800m에서는 엄태건이 1분51초33에 질주를 끝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3000m 장애물경기에 나선 남보하나도 10분47초29로 1위에 올랐다.

또 해남군청 이은빈은 여자일반부 100m에서 11초9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얻어냈다.

박서진(목포시청)은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58m54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체중 선수들의 금빛 사냥도 이어졌다. 김강석(2년)이 4분20초77로 남중부 1500m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한준상(2년)도 남중부 3000m에서 9분50초12의 기록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19일 개막한 '제54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23일까지 계속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